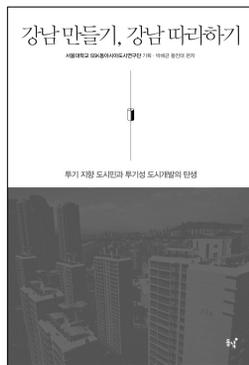


## 서평

# 환상의 공간? 환상할 공간 만들기: 한국 도시공간의 구성과 그 맥락적 의의를 찾아서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 투기지방 도시민과 투기성 도시개발의 탄생』(동녘, 2017)

김준수\*



### 1. 공간적 맥락성과 도시적인 것

한국에서 도시 공간의 변화와 시-공간의 이론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항상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다. 수입된 이론들을 우리 사회 맥락에 맞게 혹은 우리의 공간적 맥락에 ‘고쳐서’ 동원하는 방식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은 한국에서 또는 한국의 공간에 대해 연구하는 공간연구자들 혹은 학생들 사이에서도 공유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이런 학문적 ‘간지러움’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우리가 속한 이 땅,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과정(gal102@naver.com)

맥락성에 대한 성찰을 불러오곤 한다. 올해 드디어 한국의 공간적 맥락성, 특히 ‘발전주의적 도시화’의 측면에서 한국의 도시 공간 맥락성을 포괄하고 있는 글을 묶어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가 출판됐다.

최근 사회학 연구의 영역에서는 과연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인 것(the social)’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을 요하고 있다. 저자가 머리말에서 말하고 있듯이 도시 공간에 대한 사회과학적 탐구에서도 ‘도시적인 것(the urban)’을 단순히 건조환경의 것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건조환경을 포함한 생활양식, 사고방식, 사회적 관계의 포괄적 의미를 함의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뿐만 아니라 저자는 도시에 대한 이런 담론적 재현이 불러오는 이데올로기적 효과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6~7쪽). 따라서 이번에 출판된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는 단순히 강남에 대한 연구를 넘어서 ‘한국의 도시성’ 전체를 기획하고 있다.

## 2.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의 구성

이 책의 구성은 ‘강남화(gangnamization)’을 통해 구성된 한국의 도시 공간 형성과정을 따라 구성되어있다. 즉 강남을 만들어내고, 그 거주 방식의 보여주며, 궁극적으로 서울의 경계를 넘어서 나타나는 강남 따라하기 방식들을 포괄한다. 이를 위해 책은 총 11장으로 논의를 풀어내고 있다. 먼저 1장은 ‘발전주의적 성공’의 표상으로 등장한 강남이라는 공간이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되며, 동시에 등장한 몇 가지 이상들에 대한 기술과 그것의 확산 과정, 즉 “중산층의 이상적 도시”라는 헤게모니에 대한 설명과 그 대항 담론의 제언으로 구성되어있다. 다음으로 2, 3장은 강남의 심상지리에 대해 설명하며, 각각 일상생활 공간으로 강남의 정체성에 대한 설명과 강남에 거주하거나 거주 경험이 있거나, 강남 거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담지하고 있는 다양한 강남의 심상지리경계를 실증적으로 풀어내고 있다.

4장, 5장, 6장은 강남의 형성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4장은 국가 스케일에서 일어난 도시 계획사적 접근을 통해 다양하게 등장한 ‘강남의 어셈블리지’ 통치 분석을 통해 설명한다. 즉 강남이라고 상상되는 지역적 경계를 형성하고, 그 물리적 조건들을 형성해나간 국가 스케일에서의 작동은 한국의 발전주의적 성장과 도시 공간에 투영된 다양한 형태의 공간 재편성을 설명함으로써 오늘날 강남이라고 표상되는 공간의 다중스케일적 접근 가능성을 제언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5장은 발전주의와 더불어 당시에 주요한 국가 프로젝트인 반공과 권위주의라는 맥락성이 어떻게 강남에 투영되며, 국가가 투영한 ‘공간선택성’을 통해 강남의 물리적 형성과정과 사회, 문화적 의미를 다층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된 공간선택성은 크게 북한과의 대치라는 냉전적 맥락 속에서 강북 개발 억제와 강남 개발, 인구 급증에 대한 아파트의 건축으로 등장하며, 권위주의적 체제 속에 공간 개발에서 배제된 서민과 빈민, 마지막으로 중산층과 토건자본을 배려한 발전국가의 선별적 주택 산업 정책 등을 통해 발현된다. 6장은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 진행된 강남 개발, 특히 잠실지구의 형성과 86아시안 게임, 88서울올림픽이 강남의 형성과 “쾌적한 도시”, “국제도시”, “선진도시” 담론을 강남의 중산층이 체현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1970년대 유신정권에서 주도하던 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중산층 도시민들에게 도시공간에 대한 미화와 투기적 기회에 대한 열망이 더해짐으로, 권위주의 정권에서 의도치 않은 거대한 강남의 구별짓기 흐름을 형성해냈음을 밝힌다. 오늘날까지도 확산되는 이러한 흐름은 일련의 메가이벤트들을 통해 강남, 특히 그 중에서도 잠실에 형성된 “국제 수준의 명품도시”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음을 통해 설명해준다.

7장은 발전주의적 도시화 과정 속에서 대량으로 유입되는 인구의 주거를 목적으로 형성된 아파트의 관점에서 강남 만들기를 바라보고 있다. 특히 7장이 흥미로운 것은 아파트라는 주거형태가 단순히 주거공간으로 ‘수동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주거자들이 특정한 방

식으로 사유하도록 하는 논리를 담지하고 있고, 이것이 곧 ‘중산층의 독특한 정체성’을 생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8장, 9장, 10장, 11장은 강남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와 같은 강남화가 수도권 신도시의 형성, 제 2의 강남 분당의 형성과 그 내, 외부적 구별짓기, 부산과 대구의 강남 따라하기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8장은 신도시 개발 이후 주택이 가지는 가치와 이미지가 달라짐을 지적한다. 글은 분당을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에 등장한 다양한 주택광고 담론, 녹지 공간, 주차 공간 등에 대한 자료비교를 통해 제2의 강남 분당의 형성과정을 살펴본다. 9장은 좀 더 사회학적 측면에서 분당을 분석하고 있다. 분당의 형성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첫 단계는 ‘의도적 도시화’의 과정으로, 국가주도의 중산층 도시를 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과정이다. 다음 단계로는 사회적 도시화 과정으로, 분당이 성남시와는 구분되는 행정, 교육, 문화 지구를 형성하기 위해 벌인 다양한 사회적 투쟁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분당의 강남 따라하기가 단순히 ‘강남을 흉내 내는 것’이 아닌 유희문화와 빈곤이 내포된 강남이 아닌 중산층의 도시화를 담지한 일종의 ‘발전된’ 사회적 도시화 과정임을 보여준다. 10장은 부산의 사례를 통해 지방도시에서 나타나는 강남 따라 하기의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부산 해운대구의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거주자들의 심상구조 파악을 통해 부산의 다른 지역과 구별되고, 센텀시티, 마린시티 간에도 구분되는 ‘도시성’을 보여줌으로써 한국의 발전주의적 도시화가 지방의 도시화 속에서 드러나는 과정을 설명한다. 같은 맥락에서 11장 역시 대구의 수성구 사례를 통해 표출되는 강남의 도시성을 크게 건조환경, 교육 인프라, 차별적 생활환경이라는 세 가지 측면을 통해 바라보고 있다.

이와 같이 책은 강남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그 속에 작동한 국가영역과 자본의 역할, 중산층의 열망, 메가이벤트의 작동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그 이후에 ‘강남적인 것’의 확산을 강남 따라 하기를 통해 이뤄내고 있는 지역들을 보여주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전반

적인 구성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강남의 형성과 확산이라는 점에서 그 맥을 같이하고 있기에 전체적인 논의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구성됐다. 또한, 한국의 강남화 과정을 서사적으로 잘 풀어내고 있는 구성을 갖추고 있다. 책의 이런 구성은 기존의 많은 강남 연구서들이 밝아온 기술지적 인상묘사를 넘어서 강남이란 공간이 형성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강남이 확산되는 모습을 포착해내고 있기에 기존의 강남 연구서들과는 차별을 두고 있는 구성을 갖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서 전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도 남는다. 특히 ‘강남 따라하기’에서 각각의 지역들이 강남화를 발현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분당 만들기(8장, 9장)의 경우 강남의 거주 경험이 있는 행위자들의 직접적인 이주가 있었기에 그 강남성의 “이식”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부산과 대구 등 지방 도시에서 강남화의 경향성이라는 것의 확산 메커니즘은 과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여전히 국가주도의 공간 개발 내지 토건자본의 영향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한국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교육의 문제, 문화와 소비의 구별짓기 등의 사회 문제 그 자체의 발현일까? 물론 공간과 사회의 문제는 분리 불가능한 이슈로 따로 놓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지방을 강남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더 있었으면 하는 약간의 아쉬움을 남긴다.

### 3. 환상의 공간? 환장할 공간 만들기

필자는 올해 6월 한국을 방문한 토론토대학의 도시사회학자 Daniel Silver와 함께 강남 일대와 종로, 홍대 앞, 수원 등을 답사한 경험이 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서양의 도시사회학자 눈에 강남은 어떤 이미지였을까? 물론 그에게 ‘강남’은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등장한, 어떤 럭셔리한 공간쯤으로 생각하고 있던 거 같다. 그는 필자에게 강남이라는

곳의 경계와 한국 사람들에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어봤고, 여기에 어떤 답을 해야 할지 잠시 머뭇거린 경험이 있다. 이처럼 우리의 ‘강남’ 경계와 그 의미는 책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상당히 이질적이고 복잡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또한, 한마디로 강남은 ‘△△한 곳’이라고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특성을 가진 공간으로, 강남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강남이 담지하고 있는 그 사회적, 역사적 내용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 즉 강남이라는 공간은 누구에게든 화려한 투기와 소비의 공간, 누군가에게든 꿈의 공간이자 배제와 차별의 공간인 동시에 연구자들에게 한국 도시화의 중추적인 맥락을 설명할 수 있는 공간일 것이다.

한국의 발전주의적 신화에 대한 논의는 그 자체로도 사회과학계를 넘어선 다양한 층위의 논의와 논쟁들을 불러일으킨 주제이고, 정치계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주제이다. 그 원동력이야 무엇이 됐든, “값싸게, 효율적으로 빨리”라는 테제의 ‘무엇’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 같다. 도시 공간에서도 이와 같은 테제들이 작동한 결과 오늘날의 강남이 형성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강남은 성장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대표하는 공간이 됐고, ‘선진도시’의 표상으로 지금까지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책이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형성된 강남을 단순히 그렇게 국가에 의해 만들어진 ‘환상의 공간’, ‘빠른 성장과 공간의 국가-자본 축적 상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물질적 강남을 넘어 이데올로기로 자리한 강남, 즉 서울 밖으로, 지방으로, 유사한 방식의 강남 따라하기가 발생하고 있는 현장들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강남을 만들고, 그 강남을 나름의 방식으로 재현해나간 한국의 도시들에 대한 설명에서 책은 크게 그 물질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통해 ‘강남성(gangnamism)’을 바라보고 있다. 중, 대형 아파트로 설명되는 강남의 물질적 특성과 중산층 만들기, 소비의 공간, 교육을 통한 구별짓기 등으로 표출되는 사회적 특성으로써 ‘강남성’ 또는 ‘한국 도시성’의 단서들을 제공해준다. 이처럼 단기간에 강력한 도시화를 경험하고, 중산층을 생산해낸 ‘용기(container)’로 기획된 강남은 단순히 고정된 공간을 넘어 국가와 투

기자본에 의해 숨을 불어넣게 된다. 이렇게 발전주의적 “환상의 공간”은 점차 불균등발전, 투기의 장소, 중산층을 넘어서는 최상위계층의 “환장할 공간”으로 변신한다.

이 책은 이렇게 ‘강남성’의 형성과 변화과정, 확산의 과정을 보여주는 데 일정부분 부르디외의 논의를 동원하고 있다(2장, 3장, 5장, 10장). 강남의 ‘구별짓기’, 새로운 ‘경계 만들기’ 등 중산층을 위한 ‘용기로서 강남’을 넘어서 구별되는 교육, 문화, 소비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강남성의 변화과정은 부르디외의 논의와 많은 부분 그 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느끼는 강남성은 이 책이 계속 보여주고 있듯이 국가에 의한 계획과 자본, 투기에 대한 열망에 의해 의도된 도시화(9장)를 경험한 이후 니콜라스 루만의 “자기생산적 체계(*autopoiesis*)”를 형성해 낸 ‘강남성’의 논의가 강남성의 형성과정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을 위한 논, 밭에서 발전주의적 욕망의 재현과 그 확산 과정에서 ‘강남성’이라는 것의 성질의 변화는 없었을까? 또 분당의 형성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지역에서 선택적으로 ‘뽑아낸 강남성’은 더욱 특수한 지역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을까? 공간이 유동하듯 한국 발전주의적 도시화의 그 정수인 강남성의 성격 자체의 변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중, 고등학교시기를 지방에서 보낸 필자는 성인이 된 이후 ‘상경’하며 가졌던 강남에 대한 이미지는 남달랐다. 강남은 쉽게 다가갈 수 없고, 일단 비싼 곳이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알부자’라는 막연한 이미지만 가졌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강남이 정말 그러한가? 중산층의 형성 혹은 중산층의 주거를 위해 계획된 화려한 강남은 발전주의적 도시화라는 풍파 속에 폐기된 행위자들 역시 많다. 토지 수용에서의 문제, 철거민들의 주거 문제, 재개발 이권 개입 문제 등 오늘날까지도 강남 속에 “존재하는 폐기된 행위자들”에 대한 고민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책의 저자들은 발전주의적 도시화의 헤게모니를 넘어서는 다양한 대안적 도시화의 논의를 제안하고 있다. 서울에서도 다양한 대안

도시의 실험들이 이뤄지고 있고, 그 실효성과 다시금 일어나는 배제와 포섭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다만, 비판지리학자들과 비판사회학자들의 새로운 대안적 도시화의 가능성에 대한 관심에서는 폐기되는 행위자가 없기를 간절히 희망해본다.

#### 4. 나가며

『강남 만들기, 강남 따라하기』 각각의 장이 각각의 논문으로 구성될 만큼 방대한 논의를 담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도시화 맥락성의 한 영역을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해 노력한 책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서평을 통해 모두 담아낼 수 없었지만, 일부 장에 포함된 ‘대안적 도시성’의 가능성에 대한 제언은 새 정부이후에도 진행 중인 투기적 도시 공간과 부동산 열망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대안 모색의 한 축을 형성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필자는 사회과학의 한 영역에서 도시 공간의 구성과 변화의 과정에 주목해 공부 중인 대학원생의 입장에서 이 책의 출판에 대해 안도의 숨을 내쉬기도 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선배연구자들의 연구에서 간략하게만 언급되는 한국의 ‘발전주의 변수’는 모종의 상수처럼 지나가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한국의 도시 공간 형성과 그 변화 내지 확산의 과정을 강남을 소재로 한 ‘발전주의적 도시화’를 전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의 유일한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한국에서 도시 공간을 연구하는 학도의 입장에서는 이 책의 출판을 통해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느낌을 받았다. 또한, 이 책이 궁극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발전주의적 도시화를 넘어선 대안적 도시 공간의 논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는 점은 단순히 한국 도시화의 맥락성을 진단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 이후의 새로운 대안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념비적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한중수·강희용. 2016. 『강남의 탄생: 대한민국의 심장 도시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마지복스.
- 황진태. 2016. 「발전주의 도시에서 도시 공유재 개념의 이론적·실천적 전망」. 《한국 도시지리학회지》, 2호, 1~16쪽.